

시각예술 아카이브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y of Visual Art Archive

맹홍균¹, 김연희^{2*}

Hong-Kyun, Maeng¹, Yeun-hee Kim^{2*}

요약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시각예술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정보적·증거적 가치를 지니는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미술관 및 미술사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은 학술적 기능과 연구, 교육적 역할,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의 역할, 공공성의 목적을 갖는 기관과 시민에게 예술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아카이브의 개념 및 유형을 정의하고,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시각예술 아카이브 대표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와 백남준 아트센터,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컬렉션 구축 및 서비스 방식 등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시각예술 아카이브 기관의 문제점을 보완·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 시각예술 아카이브, 미술 아카이브, 시각예술 기록, 시각예술 기록정보

Abstract

The archive of visual arts means that it is worth preserving forever as a permanent record produced in the course of visual arts activities, and furthermore, the archive of visual arts that has information and evidence value supports the study of art history and art history. The use of archived materials can also be expected to provide artistic information to institutions and citizens with academic functions and research, educational roles, preservation and succession of cultural heritages, and function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rt.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type of archiv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o identify the importance and value of visual art archives. To this end, we will present measures to address and develop problems of the domestic visual art archive institution by investigating case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Research Center, Paik Nam-joon Art Center, and Kim Dal-jin Museum of Art.

Keyword : Visual Arts Archive, Art Archive, Visual Arts Record, Visual art history information

1 Yangpyeong Art Museum, Gyeonggi-do, Korea [Curator]
e-mail: maenghk7@naver.com

2 Department of Arts & Museum,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e-mail: tofree1@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November 02, 2018), Review Result(1st: November 28, 2018), Accepted(December 04, 2018), Published(December 31, 2018)

1. 서론

최근 현대미술에 있어 아카이브(Archives) 혹은 아트 아카이브(Arts Archives)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트 아카이브는 ‘공연예술아카이브’와 ‘시각예술아카이브’로 나뉘며 미술 관련 개인 혹은 미술관, 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에 대한 기록으로 영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관련한 아카이브를 뜻할 때 시각예술 아카이브(Visual Arts Archives)라 한다. 더 나아가 정보적·증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미술사를 정립하고 지원하는 문화예술 전반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시각예술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과 절대적인 시간, 전문적인 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술관 내에 미술 아카이브 센터를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1].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여타 아카이브와는 다르게 작품의 진위여부 판단과 같은 경제적 가치 측정이라는 실질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카탈로그 레조네(Catalogue Raisonné)의 형태로서 가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시각예술 아카이브가 개별적 요소로 주목받기 이전 미술관의 내부 인력이나 작품의 생산자인 작가가 직접 보관하고 있던 각종 자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며, 국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아카이브의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보고,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대표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와 백남준 아트센터,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아카이브 주요 컬렉션 구축, 서비스 방식 등을 조사해 국내 시각예술 아카이브 기관의 운영 및 컬렉션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시각예술 아카이브 기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2. 시각예술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

2.1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개념 및 유형

2.1.1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개념

아카이브의 직접적 어원은 라틴어 아르키붐(Archivum)이다. 아르키붐은 ‘시초’, ‘시작’ 혹은 ‘정부 기관’을 의미하는 아르케(Arche)로부터 유래된 용어이다. 현대적 의미의 아카이브는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The Dictionary of Art에서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협회, 기업이 과거의 활동 중 법률적 역사적 목적을 위해 유지, 보관, 보존해야 하는 기록,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혹은 기록체계’라 정의하고 있으며, 브리टे니커 백과사전은 ‘공공기관, 준 공공기관, 각종 사회단체, 기업이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들거나

수령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는 여러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소'라 정의하고 있다. 즉,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개인 및 기관이 수행하는 일정기간의 예술 활동 과정에서 생산하고 수집한 시각예술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기록들이며, 국내에서는 시각예술 아카이브, 아트 아카이브 또는 미술 아카이브 등 다양하게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2.1.2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유형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형태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기관소속 아카이브로 미술관련 기관에 소속되어져 그 기관의 기록을 수집, 보관하는 형태로 기관 활동에 한정된 기록을 수집하는 아카이브인 반면 다른 하나는 연구나 전시를 위해 가치 있는 다양한 기록을 수집, 보관하는 다원수집아카이브 형태이며, 소속기관의 기록을 포함한 미술과 관련된 가치 있는 자료들을 대상으로 수집한다[3].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미술관련 기관의 활동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아카이브이다. 이 유형은 미술작품이 아닌 원본기록, 즉 전시포스터, 리플릿, 도록, 개인사진 등의 전시관련 기록 그리고 관련된 인터뷰를 보관한다. 두 번째 유형은 창작의 과정과 결과로 생산된 아카이브이다. 작품, 스케치, 삽화 등의 활동기록 자료들은 예술적 가치에 따라서 본 작품에 준하는 가치를 가질 수도 있으며,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자료가 되기도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연구 활동 및 교육목적을 위해 생산된 아카이브이다. 창작자에 대한 연구 및 비평 활동, 교육을 통해 생산된 기록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예술적 가치를 갖지는 않지만 정보적 가치를 가져 연구, 출판에 위해 사용된다.

2.2 아카이브의 주요기능과 중요성

2.2.1 아카이브의 주요기능

최근에 아카이브의 전문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미술관들이 조직 안에 아카이브를 설치하여 연구자를 위한 공개를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술 관련기록을 수집, 평가, 분류, 기술, 보존 등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크게 해당 기록을 체계적 수집이나 이관이 가능한 소속 미술관의 행정과 운영에 대한 기록과 그렇지 못한 개별기록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술가들과 미술관련 기관의 문서들이다. 작가와 관련된 자료들은 그 작가의 생애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한다[4].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작품 활동에 대한 증거적 기능을 한다. 이 기능은 생산자인 조직이나 단체의 기록을 말하며 출판물 및 홍보활동 중 생산된 포스터, 리플릿 등의 간행물이 포함된다. 둘째, 미술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기록은 역사적으로 연구할 가치를 갖게 되어 영구히 보존된다. 여기에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 출생기록, 학력 등에 관한 정보와 작품 활동, 장소, 사안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

다. 셋째, 미술사 및 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기록은 궁극적으로 미술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을 기반으로 미술역사 편찬, 전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대중들에게 작가의 기록물을 공개함으로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미술사에 관련된 교육적인 기능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5].

2.2.2 아카이브의 중요성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창작과 연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천 자료를 제공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성의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또한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역사적 평가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예술 아카이브에 대한 중요성은 사회, 경제, 문화의 개념들이 발전하고, 그 역할이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사회기관에도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아카이브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와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는 것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함이다. 아카이브는 과거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록, 증거를 보존하거나 지식을 축적하여 현재와 미래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카이브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물을 수집, 분류, 보존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록물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인과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지식 및 정보 등을 보급하게 된다[6].

3. 국내 아카이브 기관의 사례 및 문제점

3.1 국내 아카이브 기관의 사례

3.1.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1969년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근대 및 동시대 미술을 수집·전시·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보존과 연구·학술 프로젝트 수행, 아카이브 및 연구기반 전시·출판·교육 지원을 위해 2013년 10월 미술연구센터 특수자료실을 개설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자료로 활용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 미술관 사업에서의 활용가치, 미술관의 활동역사를 증명하는 사료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아카이브란 예술 활동의 증거로서 기록이 가진 본질적 특성과 역사기술을 위한 사료가치를 가지고 각종 연구 및 교육과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공하며 활용가치를 갖는 것이다. 미술연구센터가 소장한 자료는 [표 1]과 같이 미술 아카이브로 특

수자료와 미술관자료 그리고 일반 도서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7].

[표 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소장자료 현황(2017년 초 기준)

[Table 1]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Collection Status

구분	유형	자료 수
특수자료실	특수자료	156,835점
	미술관자료	112,000여점
미술도서실	미술관련 일반도서	32,000종
	국내외 연속간행물	160종

특수자료실의 특수자료는 20세기 한국 예술가들의 스케치, 드로잉, 작가노트, 사진, 필름, 편지, 브로슈어, 포스터 등 광범위한 미술 관련 자료를 의미하며, 미술관은 2017년 초 기준 특수자료 약 156,835점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관자료는 미술관의 주요활동(전시, 교육, 연구, 학술 등)과 관련되어 생산된 자료로서 미술관의 기능과 업무를 증명하는 자료이다. 1969년 개관 이후 2017년 초까지 사진, 슬라이드, 브로슈어, 포스터, 기타 박물 등 112,000여 점의 미술관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상의 자료들 중 정리·기술이 완료된 자료에 한해 원본자료 열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술도서실 도서자료는 미술 관련 일반도서 32,000여 종, 국내외 연속간행물 160여 종을 갖추고 있으며, 미술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8].

그동안 기록물의 수집을 기증에 의존하다보니, 컬렉션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9]. 서울관의 디지털정보실을 열면서 영상이나 사진처럼 원래부터 디지털로 생산되는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동시대 작가들에 대한 정보 차원의 아카이브 수집을 보완하였다. 따라서 지침, 업무 매뉴얼, 규정 등의 내부 자료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보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진행하고 있다[10].

3.1.2 백남준 아트센터 라이브러리

2008년 10월에 개관한 백남준 아트센터는 경기문화재단의 소속기관으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과 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고 백남준아트센터와 관련한 역사적 기록 및 연구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 아카이브의 역할은 백남준 라이브러리에서 하고 있으며, 도서관 업무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표 2]와 같이 백남준과 그의 작품세계와 관련한 원자료(Primary Materials) 컬렉션들로 서신, 사진, 전시자료, 미디어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백남준 아트센터 컬렉션 보유 현황

[Table 2] Nam June Paik Art Center Collection Status

구분	컬렉션명	공개연도
백남준 동료 및 작가컬렉션	슈야 아베(Shuya Abe)	2010
	미에코 시오미(Mieko Shiomi)	2013
	카즈이 이시다(Kazushi Ishida)	2013
	마리 바우어마이스터(Mary Bauermeister)	2012
	페터 브로츠만(Peter Brotzmann)	2014
	마크 패츠펠(Mark Patsfall)	2014
	필립 코너(Phillip corner)	2014
백남준 관련단체 및 기업컬렉션	신성전자	-
	갤러리 원	2010
수집가	에릭 안데르시(Erik Andersch)	2012
	정기용	2012
	커트 숄츠(Curt Schulz)	2012

현재 슈야 아베 컬렉션, 미에코 시오미, 카즈이 이시다,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페터 브로츠만, 마크 패츠펠, 필립 코너 컬렉션, 에릭 안데르시 컬렉션, 갤러리 원 컬렉션 등을 비롯한 백남준 아카이브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백남준과 함께 작업했던 동료 작가, 지인, 컬렉터들이 생성하고 수집한 원자료 컬렉션들로 백남준의 전시 및 일상과 관련한 서신, 사진, 오브제 등을 포함한다. 보관 처리가 완료된 소장 컬렉션들은 사전에 예약하고 열람이 가능하며, 디지털화가 완료된 컬렉션의 아이템은 검색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백남준 아트센터 아카이브는 통합 운영되는 시스템을 통해 기관에 소속된 직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에게 백남준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이는 곧 다양한 전시·출판·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위하여 계층적 기술을 시행하여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집합적·계층적 기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1.3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은 개인미술자료 수집가로 활동하며 40여 년간 한국미술자료를 수집·관리해왔으며, 체계적인 미술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해 2001년에 김달진미술연구소를 개소하고 2007년에 미술자료열람실을 개방하여 연구소가 보유한 아카이브 자료를 일반인과 연구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김달진미술연구소에서는 미술계 현황과 실태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연구해 홈페이지에 게재 및 연재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엮어서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매달 발행하고 있다[12]. 하지만 김달진 개인의 생각과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컬렉션이 만들어졌지만 무분별한 수집으로 개인

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자료의 양 때문에 정리와 보존에 어려움이 많다. 자료는 한 공간에서 관리되어야 하지만 박물관의 공간이 협소해 외부 창고의 외부에 있는 자료들은 찾기조차 힘들어 선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찾을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료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새 터전을 잡은 만큼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장고를 개선하고 자료를 정리할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표 3]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자료 현황

[Table 3] Kim Daljin Art Museum Museum Data

구분	자료 수	종류
단행본 및 작가화집	8,000여권	1891년 조선아동화담, 1938년 오지호 · 김주경 2인화집 등
정기간행물	300종 8,300여권	1921년 서화협회회보 창간호, 1950년대 신미술 등
팸플릿	약 14,000여점	1929년 제8회 선전전열품목록 등
신문자료	-	1970-80년대 주요기사, 현재 서울에서 발행되는 조간 13종, 석간 2종 등
미술학회지	57종 1,200여권	조형교육, 한국근대미술사학, 미술사논단 등
미술교과서	260여권	1910-2010년대 초 · 중 · 고교 등
논문	490여권	미술이론 석사, 박사 학위논문
작가개인파일	270여권	한국 근 현대 주요작가 작품도판, 신문 · 잡지기사 수록

3.2 국내 아카이브 기관의 문제점

앞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백남준 아트센터 라이브러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대표 사례로 각 기관의 연혁과 소장자료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미술관의 시각예술 아카이브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해당 기관들의 미술 자료 아카이빙을 완벽히 완료하지 못한 상황일 것이다. 이러한 국내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의 현실적인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시각예술 아카이브가 주목 받은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국립현대미술관 등 몇몇의 대형 미술관을 제외하고 예산과 전문인력, 미술관내 자료실 공간의 문제로 그동안 수집된 자료의 정리 · 구축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둘째, 국내 아카이브의 여건상 보존과 연구업무에 집중한 편향성의 문제이다. 아카이브의 자료 수집은 기증자에게 컬렉션 단위로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료의 정리 ·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과중하기에 아카이브 활용과 정보 서비스 같은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13].

4. 국내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발전 방안

4.1 국내 아카이브의 데이터 표준화 연구

우선적으로 국내 아카이브의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각예술분야의 미술기록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 여러 아카이브 기관에서 자료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록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의 장르가 다양한 만큼 기록의 종류나 형태 또한 다양하다[14]. 먼저 국내 미술관의 다양한 아카이브 형식과 매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요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지 파일과 동영상 파일도 포맷 방식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에 표준화를 통해 자료를 보존해야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자료의 다양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카이브 표준화 연구로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자료 관리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이용이 편리해 질 것이며, 국내 아카이브 기관들의 상호 연계성이 좋아질 것이다.

4.2 시각예술 아카이브 기관의 교류

아카이브 운영의 목적은 소장 자료의 활용이다. 보존을 위해 소장 자료의 정리·기술 등의 업무가 필요하고, 활용을 위해 소장 자료의 DB구축, 열람실 운영, 전시·연구 연계 사업 등의 업무가 필요하다[15]. 최근 연구와 전시를 위해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미술관 각 기관의 소장 자료 특성에 맞게 아카이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간의 정보 교류는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시각예술 아카이브 전반에 대하여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중앙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지역대표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자료 수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및 자료 수집 방향성의 설정, 표준화에 대한 논의로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4.3 아키비스트 자격증 및 전문인력 양성

미국의 경우 기록관리 전문가에 대하여 보존기록 관리자와 기록 관리자의 자격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16].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아키비스트 자격증 제도가 없고 예술자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과 실습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는 수료증이 예술 아카이브와 관련한 유일한 증서이긴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지만 예술자료원도 하나의 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인된 아키비스트 자격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미술관

및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을 진행한다면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아키비스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질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해보고, 국내 미술관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사회적인 관심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각 기관과 개인의 아카이브에 대한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미술관 및 박물관은 대중에게 문화예술을 전달하고,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통해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이용자들의 서비스를 통해 정보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가 된다.

미술관·박물관의 기록물들은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띠고 있어 특성상 수익은 전혀 없을 수밖에 없기에 시각예술 아카이브 기관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많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들의 아카이브 교류는 기관 발전의 차원이 아닌 한국 미술계 발전과 직결된 것이기에 다양한 사례 연구도 필요하다. 앞으로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관리 방식을 공유하고 교류하여 더 나은 아카이브 관리방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길 기대해본다.

References

- [1] Lemke, Antje B. and Stam, Deirdre C. Jane Turner eds. "The dictionary of art. New York: Grove's Dictionaries." (1996).
- [2] S.Y. Lee,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Exchange of Archives in Art Museums.", Myongji University (2017):1
- [3] K.H. Kim, "Research for domestic introduction of art archives." Chung-Ang University (2000):6-12.
- [4] M.J. Jung, "Research on art archives." Myongji University (2017):15.
- [5] H.S. Lee, "A Study on Service Activities of Archives via Internet- Focusing on education and exhibition activities.", Myongji University, (2005):60.
- [6] K.H. Kim, "Research for domestic introduction of art archives", Chung-Ang University (2000): 9.
- [7] J.E. Lee, "A Study on Suggestion of Archive Technology Elements in Collection of Art Museums." Ehwa Womans University (2014):80-82.
- [8] <http://www.mmca.go.kr/contents.do?menuId=3010004110>, Retrieved (2018).
- [9] Dong-Jun Lee, "Study of Digital Technology Acceptance in Domestic Theatre."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5.2, (2016):87-98.
- [10] J.E. Lee, "A Study on Suggestion of Archive Technology Elements in Collection of Art Museums." Ehwa Womans University (2014): 80-82.
- [11] The Artro, "Rethinking Art Archives-Art Archives in Kore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2014)
- [12] <http://njp.ggcfc.kr/research/archives>, Retrieved: (2018).
- [13] N.R. Shin, "A Study on Development Method for Korean Model Development of Visual Art Archive.", Dongkook University (2016):62-66.
- [14] S.Y. Lee,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Exchange of Archives in Art Museum" Myongji University(2017):67.
- [15] N.R. Shin, "A Study on Development Method for Korean Model Development of Visual Art Archive." Dongkook University (2016):71.
- [16] S.Y. Lee,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Exchange of Archives in Art Museum." Myongji University (2017):22-23